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함께하는 타운홀미팅

질의응답 정리

연번	내 용	비 고
1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급식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이 궁금합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가 2015년부터 전국 최초·유일하게 추진해 온 친환경 급식 사업은 아동 복지와 지역 농업이 상생하는 '군산형 공공 급식 선순환 모델'의 대표적인 모범사례입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곧 군산의 미래'라는 기치 아래, 지난 10년간 이어 온 소중한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	다양한 아동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군산형 아동돌봄 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을까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아이의 상황과 연령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한눈에 비교·선택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군산형 아동돌봄 통합 포털'을 금년 내에 시스템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3	지역아동센터 급식 공산품 공급업체 선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전환할 수 없는지요?	
	현행 2개 업체 중심의 공급 구조로 인해 현장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며,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공급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급식비는 시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 교부 사업'이므로, 시가 주체가 되어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원칙상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직접 개입보다는 감독 및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현장에서 합리적인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연번	내 용	비 고
4	지역아동센터를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닌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정 파트너로 구축할 방안이 있는지요?	
	첫째, '지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전환입니다. 센터가 본연의 업무(아동 교육 및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등 행정 업무는 직원들이 직접 도와주거나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 원칙 적용입니다. 단순한 서류상 실수 등은 행정에서 수정·보완하되, 실수와 부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의적인 부정 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센터와 행정 간의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센터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행정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다져가겠습니다.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이들을 현장에서 돌보는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처우 개선 문제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그룹홈 등 관내 유사 돌봄 기관 종사자 간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정 시설만 단독으로 인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전체 돌봄 인력의 처우 수준과 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균형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